

## 54. 불식작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비인두암

성별	남	나이	61세	직종	불식 작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개요:** 망 안○○(남, 61)은 1981년부터 G공업사, 1997년부터 D공업사에서 불산, 불화암모늄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던 중, 2002년 4월 한림대 성심병원에 서 비인두암과 피부근염 진단받았다. 2005년 6월 4일 비인두암의 합병증으로 폐렴이 병발하여 사망하였다.

**2. 작업환경:** 망 안○○은 1981년부터 약 20년 간 불산액을 제조하여 기계에 붓고 보충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외 유리병을 컨베이어에 꽂는 작업, 유리병 운반 작업 등 불식공정의 전반적인 작업을 하였다. 불산액은 액체 불산에 분말인 불화암모늄을 섞고, 여기에 유리 가루를 첨가하여 발열반응을 일으켜 분말을 녹여 용액으로 제조하였고 이를 바가지로 퍼서 불산조에 넣는다.

**3. 의학적 소견:** 망 안○○은 20대부터 흡연을 하였고 비인두암 발병 1년 전에 금연하였으며, 하루 반갑정도 흡연하였다(약 15갑년). 음주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하였다. 평소에 피부의 여드름, 색조변화 등 피부 증상이 병발하였는데 불산작업을 하면 증세가 나타났다고 하고, 불산에 의한 눈에 들어가 병원을 방문하기도 하였고 피부화상을 입기도 하였다. 피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목에 혹이 만져져 한림대성심병원을 방문 2002년 4월 비인두암 진단을 받았고 방사선치료와 항암제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부 발진과 가려움 증상으로 진료 중 피부근염(Dermatomyositis) 진단을 받았으며, 비인두암에 의해 병발한 2차적 질환(paraneoplastic syndrome)으로 진단되었다. 투병 하던 중 2005년 6월 4일 비인두암의 합병증으로 발병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4. 결론:** (망)근로자 김○○은

- ① 비인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 ② 약 21년간 불식작업을 하면서 불산 및 불화암모늄에 노출되었지만,
- ③ 이들 화학물질은 비인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 ④ 고령에 흡연력이 있을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 (망)안○○의 비인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